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번역 텍스트는 마치 이것이 번역자의 모국어로 쓰인 원작처럼 읽히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의 착시 현상은 번역물 특유의 어색한 문체적 특징이 지워지고 유려하게 읽힐 때 발생하므로 긍정적인 것이다. 번역은 번역가가 제 언어로 창조한 글처럼 막힘없이 흘러갈 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인문학자 돌레가 1540년에 발표한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제대로 번역하는 법〉에서 제시한 원칙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글에서 그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에게 두 가지의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굴종적인 작업을 하지 말 것. 둘째, 라틴어에서 들어온 고어를 피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할 것.

(나) 나는 번역 작품을 읽는 것이 외국 여행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이국성, 다시 말해 외국 냄새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완전히 귀화한 번역문이란 없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허울만 그럴 뿐이어서, 엄격하게 따지면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번역은 모름지기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는 알기 쉽게 번역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원작의 자태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알기 쉽게 하는 것과 모순된다. 눈에 선 것이다. 상대가 서양 도깨비인 만큼 누구 눈에라도 설게 되어 있다. 알아보기 쉽도록 손을 쓰더라도 옷차림 정도나 바꿀 수 있을 뿐, 콧대를 깎아 낮추거나 눈동자를 후벼 내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읽기에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 것이다.

(다) 번역가의 과제는 이국의 언어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언어의 음성, 운율, 표현적 특성과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번역을 통해 모국어 안에 새롭게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의 모국어는 확장되고 심화된다. 번역이 타자를 향해 열린 언어 활동이자 제 언어를 더 풍요롭게 가꾸어 내고 경직성에서 해방시킬 새로운 출발점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에서 확장되는 것은 번역가의 모국어만이 아니다. 원문 속에 잠재해 있던 의미, 연관성, 이미지가 번역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다. 번역이라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존재했었는지조차 몰랐을 잠재성들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가는 창조자이자 예술가이다. 이때 번역의 창조적 성격은 원문을 완전히 벗어나 번역가가 펼치는 언어의 유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번역의 창조성은 원어와 번역어 모두의 언어적 잠재성을 해방시키는 데서 온다.

[문제 1] (가), (나), (다)의 필자가 번역에 대해 가지는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한 후, 자신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히시오.

[문제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가), (나), (다)의 입장 차이가 역사 해석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역사 해석은 번역 과정과 병행적이다. 과거의 역사를 원문에, 그것의 해석을 번역문에 대응시켜 볼 수 있다. 번역가가 저마다 다른 번역 태도를 취하듯 역사가도 역사를 해석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제외) 간호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아동가족학전공)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문항해설	[문제 1] 번역에 대한 동화주의적 입장, 이화주의적 입장, 언어적 잠재성 해방을 강조하는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별해 분석하고, 자신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 특정한 입장의 타당성을 설명해 보라는 문제이다. [문제 2] 상자 안의 제시문을 읽고 역사 해석이 번역 과정과 평행적인 이유를 이해한 뒤, 번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역사 해석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문제이다.
출제의도	[문제 1]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독해력, 세 가지 입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별하는 분석력, 제시문 분석의 결과를 개인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 비판적 사고로 확장하는 응용력을 평가한다. [문제 2]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현상을 이해하는 응용력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번역, 번역의 태도, 세계화, 역사관, 역사 해석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고형진 외, 《국어》, 동아출판, 2018, 172-192쪽 김동환 외, 《국어》, 교학사, 2018, 12-33쪽 류수열 외, 《국어》, 금성출판사, 2018, 164-173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2018, 161-173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2019, 74-85, 96-107, 114-133, 160-195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2019, 64-73, 82-93, 100-115, 154-187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9, 94-105, 116-125, 134-151, 202-223쪽 서 혁 외, 《독서》, 신사고, 2019, 70-79, 98-107, 118-133, 160-183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9, 74-81, 90-97, 118-135, 180-213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2019, 68-75, 76-83, 102-111, 122-133, 160-171쪽 김창원 외, 《문학》, 동아출판, 2019, 112-135쪽 류수열 외, 《문학》, 금성출판사, 2019, 174-191쪽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9, 137-155쪽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146-163쪽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9, 148-167쪽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18, 191-193쪽 김영순 외, 《사회·문화》, 교학사, 2018, 181-183쪽 서범석 외, 《사회·문화》, 지학사, 2018, 181-183쪽 손영찬 외, 《사회·문화》, 미래엔, 2018, 180-182쪽 신형민 외, 《사회·문화》, 비상교육, 2018, 173-176쪽 박철웅 외, 《세계지리》, 미래엔, 2019, 10-13쪽 신정엽 외, 《세계지리》, 천재교과서, 2019, 10-15쪽 최병천 외, 《세계지리》, 비상교육, 2019, 10-15쪽 황병삼 외, 《세계지리》, 금성출판사, 2019, 12-15쪽 김덕수 외, 《세계사》, 천재교육, 2018, 13-17쪽 김형중 외, 《세계사》, 금성출판사, 2018, 12-15쪽 이병인 외, 《세계사》, 비상교육, 2018, 10-15쪽 최준채 외, 《세계사》, 미래엔, 2018, 10-15쪽 [기타] 조재룡, 《번역하는 문장들》, 문학과 지성사, 2015 황현산, 《완전 소중 시코쿠-번역의 관점에서 본 황병승의 시》, 창작과 비평사, 2006
------	--